



21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08 하나은행 FA컵 결승 경남FC-포항스틸러스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포항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포항 12년만에 챔프 탈환

## FA컵 결승

포항 스틸러스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축구 최강을 가리는 FA컵에서 경남 FC를 꺾고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포항 미드필더 최효진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포항은 21일 오후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8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전반 3분 황진성의 결승골, 후반 33분 김재성의 추가골로 경남을 2-0으로 눌렀다.

이로써 FA컵 최다 결승 진출팀(5회)인 포항은 1996년 초대 챔피언이 된 뒤 12년 만에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K-리그 챔피언이 된 지난해 전라남도 FC와 FA컵 결승에서 패해 시즌 더블(2관왕) 달성에도 실패하는 등 1996년 우승 이후 세 차례(2001, 2002, 2007년)나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올해 제도전에서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포항은 우승 상금 2억원(준우승 1억원)과 함께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획득했다.

지도자상을 받은 브라질 출신 세르지오 파리아스 포항 감독은 K-리그와 FA컵 모두 우승을 경험한 첫 번째 외국인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초의 도민구단으로 2006년부터 K-리그에 참가한 경남은 창단 첫 우승을 노렸지만, 포항의 저력 앞에 무릎 꿇고 말았다.

## 황진성·김재성 골...경남 2-0 제압 내년 AFC 챔스리그 출전권 획득

겨울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치러진 경기에서 포항은 마케도니아 용병 스테보와 9월 팀 훈련 중 무릎 인대를 다친 뒤로 처음 경기에서 나선 브라질 출신 데닐손을 투입해 세우고, 황진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했다.

경남은 고양 국민은행과 준결승(5-0 승)에서 혼자 네 골을 몰아넣은 김동찬을 브라질 출신 인디오와 최진방에 배치해 포항에 맞섰다.

균형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깨졌다. 포항의 오른쪽 미드필더 최효진이 상대 수비 세명을 잇달아 제치고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중앙으로 찰라준 공이 경남 골키퍼 이광석 손에 맞고 흐르자 황진성이 골 지역 정면에서 왼발로 차분하게 차 넣었다.

포항은 이후 좌·우 미드필더 박원재와 최효진의 빠른 발과 돌파를 활용해 상대 측면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불의의 일격으로 잠시 주춤했던 경남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중반부터는 공방이 이어졌다. 전반에만 포항이 4개, 경남이 2개의

엘로카드를 받는 등 경기는 점점 격렬해졌다.

K-리그 사령탑으로 복귀한 첫해 우승까지 내다봤던 조광래 경남 감독은 전반을 끌려간 채 마친 뒤 후반 들어 14분 중앙수비수 산토스를 빼고 미드필더 김영우, 18분에는 미드필더 이상민을 빼고 스트라이커 김진용을 넣으며 승부수를 띄웠다. 후반 30분에는 미드필더 박원재를 빼고 공격수 정윤성까지 투입하며 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끝은 포항 파리아스 감독이 교체 투입한 선수가 넣었다. 후반 29분 황진성을 대신해 들어간 김재성은 후반 33분 박원재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돌려놓아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도와 포항의 우승에 큰 힘을 보탠 최효진은 MVP상(상금 300만 원)을 수상, 기쁨이 두 배가 됐다.

경남의 공격수 김동찬은 6골로 대회 득점 상을 탔고, 페이플레이어상(상금 1천만원)은 싹싹 털어냈다. 최효진은 4골로 진출한 국민은행에 돌아갔다. /연합뉴스

## KIA 최희섭 '와신상담' 겨울캠프

# “몸무게 18kg 줄였어요”

포항서 고강도 개인 훈련  
고기 안먹고 나물만 섭취  
쉬는 날엔 휴식없이 등산

KIA 타이거즈 최희섭의 2008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6일 납회식을 끝으로 팀의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지만 '빅 초이' 최희섭은 올 시즌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멀리 경상북도 포항을 찾아 희섭의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지난 20일, 부상으로 쓸쓸히 올 시즌을 접어야 했던 최희섭이 모처럼 방방이를 들고 포항제철공고 운동장에 섰다. 3개월만에 프리배팅에 나선 최희섭은 이내 2009 신인 손정훈이 던져주는 공을 110m 거리의 스탠드 너머로 훌쩍 넘기며 구경 나온 학생들 입에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최희섭의 포항행에 동참해 노심초사 마음 졸이던 황병일 타격코치도 엄지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희섭이 포항에 여장을 풀 건 지난 6일, 부상 탓에 납회 캠프 대신 무등경기장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희섭은 12월부터 선수단이 자율훈련에 들어가자 자비를 들여 후배 나지완과 '루키' 안치홍·손정훈을 이끌고 겨울이 따뜻한 포항을 찾았다.

겨울 캠프를 차린 최희섭은 매일 같이 오전에는 포항 종합운동장과 야구부사가 있는 포철공고에서 티배팅 등 기술 훈련을 하고 있다. 오후에는 헬스장을 찾아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하며 비지움을 즐겼다. 쉬는 날에는 경주 남산을 오르내리며 심없는 훈련을 이어왔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치열한 12월은 처음이라는 최희섭은 그 사이 몸무게가 18kg이나 줄어 108kg를 유지하고 있다. 배팅 스피드도 빨라졌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올 한 해 지긋지긋하게 괴롭던 부상 걱정도 있었다. 체중이 줄기는 했지만 꾸준한 웨이트로 '빅 초이'의 파워는 여전히 있다.

군살 없이 가벼워진 몸처럼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최희섭의 훈련과 트너로 나선 신인 나지완은 "몸 관리를 위해 풀만 먹고, 산에서는 날아다니다.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이 지난 20일 포항제철공고 야구부 실내 연습장에서 티배팅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배가 너무 열심히 해 훈련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며 허를 내두른다. 덕분에 나지완도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이들의 열성에 겨울 휴가를 반납하고 고향 포항을 찾아 '와거포' 최희섭과 '우거포' 나지완의 조언에 나선 황병일 코치는 지나친 의욕에 부상이라도 당할까봐 훈련을 막을 정도다.

후배들도 최희섭의 열정에 잠시도 운동화를 벗지 못하고 있다. 최희섭은 후배들 등을 때리며 산을 오르고, 유연성 강화를 위해 직접 스트레칭을 지도한다.

입단 전부터 차세대 투수로 주목 받으며 특별 훈련에 나선 내야수 안치홍과 손정훈의 양손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지만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영표·박주영 "겨울휴가 왔어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뛰는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사진)가 소속팀 동계 휴식기를 맞아 일시 귀국했다.

이영표는 21일 오후 1시25분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수비수 이영표는 지난 13일 보루시아 뮌헨과 2008-2009시즌 12라운드 경기에서 정규리그 12경기 연속 토폴타 기록을 이어갔는데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3주 휴식기에 들어감에 따라 입국하게 됐다.

지난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홉스퍼에서 독일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이영표는 구단과 2010년 6월까지 1년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이영표는 국내에서 연말을 보내고 나서 소속팀 전지훈련 합류를 위해 내년 1월 초 출국하며 내년 2월1일 바이에른 레버쿠젠과 13라운드 홈경기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박주영(23·AS모나코)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리그) 시즌 도중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다. 박주영은 20일 입국해 이날 정성룡(23·성남 일화)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지난 14일 열린 2008-2009 정규리그 18라운드 발랑시엔과 원정경기를 하루 앞두고 엉덩이 근육을 다쳤던 박주영은 오는 22일 보르도와 19라운드 홈경기에도 뛰기 어렵다고 판단해 히카르두 고메스 감독의 허락을 받아 예정보다 조기 입국했다.

박주영은 국내에서 연말을 보낸 뒤 내년 1월 초 출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베컴 AC밀란 입단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에서 뛰는 미남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3)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클럽인 AC 밀란에 공식 입단했다.

베컴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입단식을 하고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AC 밀란 부회장에서부터 등번호 3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받았다. 베컴은 갤럭시에서 23번을 달았으나 AC 밀란의 32번 등번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베컴은 내년 3월 초까지 석 달 가량 AC 밀란의 임대 선수로 활약하며 우디네세와 경기를 관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30일부터 진행되는 겨울 캠프에 합류한다. 데뷔전은 빠르면 내년 1월12일 AS모나코 원정경기가 될 전망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 등번호를 달고 전성기를 이끈 베컴은 파비오 카펠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뛰어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잠시 세상 거꾸로 보는 재미?

21일 중국 창춘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 월드컵 대회 에어리얼 여자부경기에서 중국의 자오 산산이 공중회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